

과학을 잘 이해하는 시민이 되자

과학기술시대에 걸맞은 사고방식 갖춰야

현원복
과학칼럼니스트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P)은 1만76달러였다고 한다. 또 이런 추세라면 2005년 이전에 우리의 GNP는 3만달러에 이르러 세계에서 여덟번째로 소득이 높은 국민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소득만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일류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중동의 산유국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돈도 돈이려니와 그밖의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세계은행이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로밀도는 세계6위, 상수도보급율과 하수도시설은 각각 32위와 31위로 처지고 있다.

이밖의 복지정책이나 시설은 선진국을 따르자면 아직도 갈길이 멀다. 그러나 도로를 건설한다거나 상·하수도시설을 증설한다거나 복지시설을 늘리는 것은 돈만 있으면 단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사회변동의 물결 속에서

21세기의 문턱을 바로 앞에 두고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과학기술문명시대를 맞아 빠른 걸음으로 변천하는 거대한 사회변동의 물결을 어떻게 슬기롭게 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에 대한 정신적인 대비가 없을 때는 돈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시대의 낙오자나 방관자가 되게 마련이다. 또 국민중에서 이런 방관자나 낙오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는 영도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고 마침내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뒤지고

만다.

지난 몇해 동안 우리는 여러차례의 대형 사고를 치렀다. 따지고 보면 거의 모두가 천재가 아닌 인재였다. 바깥 말해서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무시하거나 모자라서 생긴 사고였다. 국제도로안전협회(PRI)의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차량 1만대당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세계 5위 그리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23.1명으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간 1만명이 넘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과속과 중앙선 침범으로 죽은 사람이 30%를 웃돈다. 이밖에도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연간 35만명이 넘는데 이것은 인구감소와 맞물려 노동력부족 등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교통사고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과학적인 사고방식의 결여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이런 교통사고로 버리는 돈은 연간 6조원에 이른다. 21세기에는 시속 3백Km의 고속열차를 비롯하여 8백명이 탑승하는 초대형여객기와 시속 1백Km의 대형 고속선박 등 초고속교통시대의 막이 오르면서 초대형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크다.

교통기술의 혁명은 사회변동의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21세기에는 정보통신·생명공학·에너지·소재·기계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의 기술혁신이 어우러져 사회는 물론 시민 개개인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21세기의 새로운 과학문명사회를 슬기롭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서는 책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게 능동적으로 시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은 시민 각자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추는 일이다. 사고방식의 전환에서 학교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국가에서는 책을 비롯한 매체를 통해 일반시민의 과학적 사고방식을 함양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시책이나 사업중에서 과학과 기술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는 형편이어서 과학을 이해하는 국민의 뒷받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우선

또 과학대중화사업은 범국가적으로 추진할 때 비로소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1956년 구소련의 스푸트니크위성으로 쇼크를 받은 미국은 일반국민의 과학을 이해하는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 새

로운 과학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한편 포드재단 등의 지원으로 컬럼비아대학 언론대학원에 과학보도과정을 신설하여 과학보도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여 배출했다.

이들 과학전문기자, 작가, 극작가, PD들은 미국의 신문, 잡지, 방송, 출판사로 진출하여 학생들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과학기술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수용할 수 있게 되어 과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국민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새로운 세기를 맞아 우리가 과학기술 문명시대에 걸맞은 정신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높은 자질을 갖춘 충분한 수의 과학저술 및 해설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종래 구호만 요란했던 과학대중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해본다. ❖

동아출판
TEL: 861-4818
853-5608

연대판 한·일 전쟁에서는 한국이 이긴다?

한국 여자와 결혼한 일본 남자 히라이 히사시 씨. TV특파원으로 서울에 머무는 동안 사귀게 된, 툭툭 튀는 한국 여자를, 한 쌍을 이루기까지 치러 낸 수많은 사연들을 엮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달라야만 하는 걸까요? 아내는 성격 칼칼하고 때로는 경우도 없이 따지기 좋아하는 한국사람, 남편은 천성이 확실한 게 없는 모호한 일본 사람인 것입니다. 언어 한 토막, 갈치 한 토막이 따로 구워 올려지는 이들의 밥상. 생선 취향에도 민족성이 반영되는 것일까요? 상식이 다른 두나라, 선명하게 대립되는 두개의 문화를 끌어 안고 벌이는 해프닝과 그 대립을 하나의 '재미'로 받아들이기까지 3년 여의 시간을 실감나게 담은 한솔밥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얻은 깨달음으로 "이제는 서로 다른 것이 즐겁다"는 두 사람. 민족이니 남이니 하는 문제보다 더 큰 세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알미운 한국인!'을 주장하고 나선 애처가 일본 남편이 농도 짙게 한국 여자를 꼬집습니다. 연대판 한일 전쟁에서는 한국이 이길까요? 히라이 히사시 지음/정가: 6,000원